

홍천실버신문

건강한 노후 · 활기찬 노후 · 일하는 노후 · 행복한 노후



발행처 홍천군노인복지관 발행인 자유희님 발행일 2017. 6. 1 주소 강원도 홍천군 읍 대학여내길 80-3 전화 033-430-8700 FAX 033-430-8790 홈페이지 www.hcknowin.org/

홍천군원로회 ‘어른다운 행동들’



◇ 곽성호 회장

왕성했던 사회생활에서 은퇴했지만 지역발전에 대한 열정만은 젊은이들 못지않은 황혼의 삶을 살고 있다. 매월 모임을 갖고 홍천지역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청소년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한다.

이 단체는 만70세 이상을 넘겨야 가입할 수 있다. 바로 홍천군원로회이다. 그동안 친목회 형식으로 운영하다 2014년 10월 6일 정식 창립됐다. 회원은 곽성호(88) 회장을 비롯해 33명으로 구성됐다. 김창묵 동창만세기념사업회장이 96세로 최고령이다.

홍천군원로회는 창립한 후 첫 번째 사업으로 5개월 만에 홍천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들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대접받



◇ 홍천군노인복지관 개관기념 및 어버이날 행사가 5월 24일 노인복지관에서 10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14년 10월 창립 후 장학금 지급 등 지역사랑 앞장 3·1운동 100주년 맞아 독립선언문 석탑 건립 계획

기보다는 어른답게 배려하며 살자는 각오로 뭉쳤다. 올 연말부터는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홍천군원로회원들은 6·25전쟁에 참전하고, 보릿고개를 넘기는 등 젊었을 때 고생을 해서 누구보다도 인재육성의 필요성을 느끼며 살아온 세대들이다. 그래서 장학 사업에 이어 바르게살기 선도, 가훈 써주기 등을 펼치고 있다.

올해 최대 현안사업은 일제에 항거한 3·1절 100주년이 되는 2019년 3월 1일 독립선언문 석탑

을 건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회원들이 경비를 마련하고 있다.

또 국방부 구조개혁지침에 따라 홍천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육군11사단 신병교육대 폐지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다. 홍천군원로회는 육군11사단 신병교육대가 폐지되면 홍천지역 경기에 막대한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신병교육대 유지에 홍천군민의 힘을 모으는데 앞장서고 있다.

또 내촌면 척야산 민족정기선양 광장에 무궁화 두 그루를 식재하고 기념표지석을 설치했고, 매

년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 있는 홍천동창마을 만세운동 기념탑을 방문하고 있다.

홍천군원로회는 지역 현안문제에 앞장서기 위해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회원 영입에 나섰다.

곽성호 회장은 “홍천시장과 천년의 고찰인 수타사와 북한강의 원류인 홍천강변 400리길 등 홍천지역 관광지를 알려 수도권 시민들이 홍천을 방문하는데 기여하고, 젊은이들에게 존경받는 어른답게 행동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세구 기자

* 홍천실버신문은 55세 이상 어르신 기자단이 만들어 가는 신문으로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나아가 노인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를 제공받고 싶은 분은 구독신청 바랍니다. 홍천군노인복지관으로 구독신청서를 제출해주시거나 전화로 신청하세요!

* 홍천실버신문은 개인 및 단체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매월 1일자 2,000부가 발송되고 있으니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광고료는 공식성 유무 확인 후 홍천실버신문 광고료 규정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 홍천군노인복지관 6월 행사일정

일시	장소	내용
2017. 06. 15.(목)	홍천군종합체육관	제7회 한마음 운동회
2017. 06. 27.(화)	K컨벤션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상반기 평가회의

CONTENTS



02 - 홍천군노인복지관 NEWS

03 - 귀농·귀촌인 이야기

04 - 경로당 탐방

05 - 다문화가정이야기

06 - 유적지/전설

07 - 우리 직장 칭찬릴레이

08 - 기자칼럼

- 독자기고



후원계좌 : 국민은행 313501-04-161305 농협 301-0084-3440-11 우체국 200238-01-006584

※보내주신 후원금(물품)은 기부금공제법 제 25조에 의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월정사복지재단
홍천군노인복지관

못 배운 한 해결 “한글 마음껏 쓰고 싶다”



◇ 홍천군노인복지관 열린반(반장 임행순·71)

홍천군노인복지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열린반(반장 임행순·71)은 복지관 별관 1층 배움터3교실에서 주2회(월·수) 오후 1시~3시까지 김구옥 강사의 지도로 열리고 있다.

임 반장은 요즘 배우는 즐거움에 빠져있다고 했다. 임 반장은 “이제는 한글을 읽고 쓸 수 있

이 좋아져서 요즘 해외여행이 대세인데 내년엔 영어도 배워서 원어민과 영어로 대화해보고 싶다.

“나는 행복의 조건으로 선진 문화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모르면 무시당하고 손해 보는 세상이라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한글알고 담장 안에서 넓은 세상 나온 것 같다” 산수 풀면 머리 맑아지는 느낌 만학의 즐거움

어서 너무 좋다. 병원에도 스스로 갈 수 있고 누구와도 글로 소통할 수 있고 무엇보다 스마트폰으로 카톡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마치 답답한 담장 안에서 넓은 세상으로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녀는 일찍이 알고 싶고 배우고 싶었는데 이제는 소원을 이룬 것 같아서 행복하다. 시절

만학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김계순(70) 씨는 못 배운 게 늘 한이었다. 그녀는 “우리시대에 여자로 태어나서 학교에 다니는 것이 어디 그리 쉬웠겠나. 식구도 많고 먹고 사는데 급급한 나머지 학교는 올라갈 수 없는 유리천장 같았다. 한글을 배우지 1년이 지나니 이제는 읽고 쓸 뿐만 아니라 산수도 척척 풀 수

있다. 모르던 걸 알고 보니 사는 게 너무 편하고 좋다”며 “방학도 없이 그동안 열심히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자식을 다 공부시키고 출가 보내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이제는 사는 게 너무 즐거분하다. 막상 처음에는 이 나이에 공부가 될까 싶었는데 배우는 즐거움이 곧 행복인 줄 미처 몰랐다. 이제는 멀리 있는 자식들에게 못 다한 사연을 손 편지로 써보고 싶다. 배우지 못했던 설움을 마음껏 글로써 풀어보고 싶다. 시도 쓰고 일기도 쓸 생각이다. 산수는 풀어보니 답이 척척 나오니 재미있고, 머리도 맑아지는 느낌이다. 늦긴 했지만 못 다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김 강사는 요즘 가르치는 즐거움에 보람을 느낀다.

“마치 겨울을 지난 땅에서 싹이 돋고 마침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나날이 발전해가는 모습들이 아름답고 신비스럽기까지 하다. 양상한 가지에 움이 트면서 잎이 돋고 푸른 잎으로 커가면서 신선한 향기를 발산할 때 거기서 우리는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끼듯 나는 그걸 이 배움터에서 실감한다. 공부로 불태우는 노년의 정열이 너무 감동스럽다. 중국 사람은 태어나서 자기 나라 글을 다 모르고 죽는다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글은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워서 세계 어느 나라 말도 다 한글로 쓸 수 있는 우수한 글이죠. 인생에 공부가 끝이 있나요? 알아가는 만큼 삶의 폭도 넓어지고 인생의 맛도 깊어지는 것이죠.”



조정철 기자

홍천군 시니어예술단 숲속 음악회 개최



홍천군노인복지관 소속 시니어예술단 실버악단이 5월 8일 동면 수타사에서 봄맞이 숲속 음악회를 개최했다.

계방산 불광사 쌀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계방산 불광사는 5월 12일 홍천군노인복지관에 쌀 500kg을 전달했다.

설원침냉면 · 한서라이온스클럽 후원



설원침냉면 홍천점(대표 백복순)과 한서라이온스클럽(회장 박창근)은 5월 26일 홍천군노인복지관 재가어르신 100명에게 점심식사로 냉면과 떡을 제공했다.

귀농·귀촌인 이야기(6) 장우현 씨(내촌면 물결리)

“오미자와 블랙커런트에 제2인생 걸었어요”



◇ 장우현 씨는 3년 전 귀농하여 홍천과 인연을 맺었다.

“서울 청담동에서 사진관을 경영했다. 그러나 스마트폰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전환되면서 사진관이 사양사업으로 접어들자 아내(이선미·46)와 상의해 귀농을 결심했다.”

홍천 내촌면 물결리 동창마을로 2014년 귀농한 장우현(48) 씨는 “땅은 정직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갖고 귀농했다.

그는 전라남도 화순에서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농촌에서 자라 인생 이모작으로 자연스럽게 농사를 생각했다.

젊은이답게 귀농하기 전 인터넷을 통해 귀농에 비자 교육이 있는 것을 알고 내촌면 귀농학교에 입학해 귀농교육을 받았다. 그가 지금 농사짓는 땅 3600여 평은 홍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공부하던 멘토의 도움으로 15년 동안 임차했다. 그는 골짜기 분지 형 밭을 중장비로 평탄작업을 한 후 블랙커런트와 잔대(2100평), 오미자(1500평) 비닐하우스 시설 등을 말끔하게 설치했다. 여러 동의 비닐하우스 안에는 오미자가 자라고 있다. 잔여 농지에는 참옥수수와 고추를 재배하고 있다.

귀농 전 교육받고 농지 임차 농사 쓴맛 경험이 자산 귀농은 현실 철저한 준비만이 살길… 올해 수익 기대

그는 귀농 후 여러 차례에 걸쳐 농사에 대한 쓴맛을 경험했다. 귀농 후 첫째 청양고추를 재배했으나 시세차익이 심해 손해만 봤다. 첫 수확시 2만원 하던 청양 고추(1상자)가 수확해보니 1만원 이하로 급락해 도저히 채산을 맞출 수가 없었다고 한다. 고추를 10상자 수확해보니 인건비도 건지지 못했다고 한다. 더덕도 1000평을 재배했지만 경험부족과 관리부실로 수입을 올리지 못했다.

농사만으로는 생계가 어렵자 아내가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그의 아내는 홍천읍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아들은 고등학교, 딸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귀농보조금과 농사를 위한 초기투자가 많고, 오미자는 3년이

지나야 수확이 가능해 귀농 이후 일정기간 동안은 생계가 쉽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교육지책이다. 농사로 인한 수확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는 아내가 교육비와 생계를 담당할 예정이다.

그는 올해 오미자와 블랙커런트 농사에 집중하고 있다. 블랙커런트는 일명 서양 까치밥이라고 한다. 원산지는 히말라야, 중앙아시아, 유럽 등으로 잎은 허브향이 나며 열매의 추출액은 목 감염, 고혈압, 모세혈관이 약할 때 쓴다고 한다. 차와 젤리 등으로 다양하게 쓰여 전망이 좋아 높은 소득이 기대된다고 했다. 그는 귀농 후 농사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귀농 후 우리나라의 조와 비슷한 잡곡인 키노아가 밥을 해 먹으면 맛이 좋아 가격이 1kg에 2만1000원까지 하는 등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는 주위의 말만 듣고 1500여 평에 키노아를 재배했으나 장마철 때 피해를 입어 수익을 올리지 못한 아픈 경험이 있다. 그래서 농사는 경험과 과학적인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귀농 후 겪었던 실패는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실패들이 성공을 위한 귀중한 자양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귀농 예비자들에게 귀농은 꿈이 아닌 현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귀농은 철저한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또 농사는 작물을 잘 선택해야 하

고, 출하시기도 잘 맞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홍천읍에서 내촌 농장까지 30km가 넘는 거리를 출퇴근하다가 본격적인 농사를 짓기 위해 농막에서 생활하고 있다. 올해는 반드시 수익을 올리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그는 “제2인생을 농사짓기로 결심한 만큼 최선을 다해 나의 꿈을 이루어나가겠다”며 “농사로 인한 수입이 생기면 전통가옥을 짓고 수도권 주민과 어린학생들이 숙식하며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농장을 운영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경로당 탐방시리즈 (36) 홍천읍 태학리 경로당

회원 평균 85세 생활만족이 장수비결



◇ 홍천읍 태학리 경로당(회장 이순재(75)·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홍천읍 태학리 경로당은 1986년 5월 1일 건립됐다. 이장원(92) 초대 회장과 이순재(75) 회장, 이달선(72) 총무 등 회원 40명(여자 24명, 남자 16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하루 평균 20명이 모여 점

은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보건소에서 주최하는 식생활에 대한 건강비결과 혈압측정, 건강체조 등 건강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일 자리와 건강프로그램으로 인해 회원들 간 협동심과 근면함이 생겨 생활

순극 씨와 함께 경로당을 자주 이용하는 회원으로 다른 회원들과 잘 어울리며 친목을 다지고 있다.

또 축산업을 하고 있는 이재국(85) 감사는 부부가 함께 경로당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회원들로부터

을 방문해 회원들의 건강 상담을 해 주고 비상약품을 챙겨주는 등 도움을 주고 있다.

또 타 지역에 비해 면적은 넓으나 경로당 인근에는 몇 가구만 있고 여내골과는 4km 이상 떨어져 있다.

태학리 경로당은 결운1리 경로당과 게이트볼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친선경기를 자주 열어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체조로 단합을 유지하고 있다. 봄가을에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에서 정기적으로 삼계탕을 제공하는 경로잔치를 개최하는 등 마을세대간 화합을 다지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에는 여자 3명, 남자 1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순재 회장은 “경로당 회원들 간의 유대가 강하고 돈독하다”며 “회원들의 활기찬 생활을 위해 부업을 할 수 있는 일거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태수 기자



하루 평균 20명 모여 마을 대소사 나누며 단합 일거리 건강프로그램 병행 이웃경로당과 화합

심을 먹고 오락을 즐기며 마을 대소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형제자매처럼 지내고 있다.

태학리 경로당은 이사 직책을 맡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홍천시장 상인들로부터 도라지, 더덕을 손질하는 일을 맡아 적지 않

에 만족하고 건강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

태학리 경로당은 회원 평균나이가 85세로 장수어르신들이 많다. 그중 이순극 회원은 내년 100세가 된다. 그래서 경로당 차원에서 백수잔치를 해줄 예정이다. 김성주(93) 씨도 이

부러움을 받고 있으며, 회원들과도 친하게 지내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다.

태학리는 한때 90가구가 살고 있었으나 인근부대의 소음 등으로 현재는 6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인근부대에서 정기적으로 경로당

◇ 경로당 임원 현황

직책	성명	연령	직업
회장	이순재	75	농업
감사	김인옥	79	주부
감사	이재국	85	축산업
총무	이달선	72	농업
이사	이옥녀	79	주부
이사	송영순	77	주부
이사	이한복	81	농업

☎ 033-434-9551

고시조

마음아 너는 어이 - 서경덕(1489~1546)·조선 중기 유학자

마음아 너는 어이 매양에 젊었느냐
내 늙을 적이면 넌들 아니 늙을 쏘냐
아마도 너 쫓아다니다가 남 웃길까 하노라

•해설 : 이 작품에는 두 자아가 나타난다. 하나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몸이다. 너(마음)는 매양 젊어 있지만, 내(몸)가 늙는다면 너 또한 늙지 않겠는가 하는 발상은 신선하다. 이 작품의 묘미는 종장에 있다. 늙은 몸이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젊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몸과 마음을 더욱 멀어지게 할 뿐이다. **조정철** 기자

사자성어

日暮途遠(일모도원)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없음. 일모는 ‘날이 저물다’는 뜻이고, 도원은 ‘가야할 길이 멀다’는 뜻이다.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 이미 늙어 앞으로 목적인 것을 쉽게 달성하기 어렵다는 말.

조정철 기자

다문화가정이야기 (35) 홍천군 화촌면 판 껌호아(37) 씨

“시어머니와 남편이 너무 잘해주 행복해요”

“한국에 근로자로 와서 처음에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 좋은 사람(남편)을 만났어요. 언니의 조카딸이 한국사람 소개시켜 달래요.”

베트남에서 홍천 화촌면 송정리로 시집온 판 껌호아(37) 씨는 ‘한국이 경치도 좋고 도로도 잘되어 있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했다.

그녀는 베트남에서 아버지 판 껌(74) 씨와 어머니 레 티터이(68) 씨의 4남6녀 중 일곱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베트남전쟁 시군에서 간호사로 일했다. 전쟁이 끝난 후 미국으로 갈 기회가 있었으나 어머니의 반대로 못 갔다. 그 후 아버지는 농사를 짓고 어머니는 쌀가게를 운영했다.

그녀는 가정형편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쌀가게에서 5년 동안 일한 후 호치민시에서 의류회사(VIET THINH)에 10년간 근무했다. 그러나 급여가 적어 한국의 근로자로 일하기 위해 3년 동안 한국어를 배웠다.

2011년 3월 22일 외국인근로자 자격으로 한국에 왔다. 천안의 한

인삼농장에 월 110만 원에 숙식을 제공받고 월2회 휴일받는 조건으로 취직했으나 농장주가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 농장주에게 10만 원을 빌려 밥솥 등 취사도구를 구입해 식사를 해결했고 3개월을 일하고 한 달 보수만 받았는데도 작업책임자의 서명이 없으면 다른 일자리로 옮길 수 없었다고 했다.

결국 2개월 급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농장주 서명을 받아 마산지역 식당으로 옮겼지만 50일을 일했는데 30일분만 받았다. 생활비가 없어 언니로부터 150만 원을 빌려 생활했다. 한국에 머지 않은 지인의 도움으로 식당의 급여를 포기하고 서명 받아 이전 버섯농장에 취업했다. 이곳사업주는 이전과는 다르게 좋았다. 이전 버섯농장이 홍



◇ 판 껌호아(37) 씨가 아들과 함께 밝게 웃고 있다.

홍천사랑어린이집에 다니는데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먼저 손부터 씻기고 음식을 먹게 하는 등 그녀의 위생관념은 철저하여 집 안팎을 깨끗하게 관리한다. 남편은 쉬는 날엔 아들과 놀아주고 청소도 해주는 등 가정적이고, 시어머니도 자신을 딸처럼 아껴줘서 그녀는 늘 웃으며 행복하다고 했다.

처음 시집와서 아들이 돌을 지나자 친정어머니가 손자 보고 싶다고 해서 친정에 갔다가 한국의 추운겨울을 피해 두 달 동안 머물다 귀국했다. 2016년 4월 27일 자동차 운전면허(2종)를 학과시험과 실기를 한 번에 합격했다. 그녀는 현재 홍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한글을 배우러 다닌다.

2016년 12월 17일 그녀 부부는 ‘아름다운 미소’와 ‘배우자의 안정적 한국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홍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의

‘미소상’과 ‘멋진 남편상’을 각각 수상했다.

시간을 내서 남편과 함께 서울 한강공원, 63빌딩, 에버랜드, 남이섬, 동해안

등 여러 곳을 다녀왔고 주말에는 가까운 수타사 생태 숲에 자주 놀러간다.

그녀는 가끔씩 재료를 구입해 베트남 음식인 쌀국수와 베트남 부침개인 반세오(banh xeo)를 만들어 시어머니와 남편의 입맛을 즐겁게 해준다. 얼마 전에는 그녀가 베트남의 친구를 한국남자에게 소개시켜주기 위해 남편과 함께 베트남을 다녀왔다. 그 친구는 한국남자와 곧 결혼한다.

그녀는 ‘엄마(시어머니)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가족이 모두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옥희 기자

근로자 자격 한국 방문 못된 사업주들 만나 고생
부부가 미소상 멋진 남편상 수상 현재의 삶 만족

천으로 옮기면서 그녀도 화촌면 야시대리로 왔다. 이곳(참맛버섯영농조합)에서 3년 동안 근무했다.

버섯농장에서 회사직원으로 근무하는 남편 친구의 소개로 2013년 5월 남편 심일구(48) 씨를 만났다. 2014년 2월 10일 결혼하고 시댁인 송정리로 왔다.

남편 심 씨는 아버지 심종국(83) 씨와 어머니 이영주(81) 씨의 3남 1녀 중 막내다. 홍천농고를 졸업 후 서울에서 6년 동안 회사생활을 하다 고향으로 돌아와 건축 일을 했고 현재 홍천주유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시아버지는 2년 전 별세했다.

2014년 딸 아들 심유식(4)을 낳았다. 아들은

유적지 탐방(16) 홍천 화촌면 군업리 지석묘군

지석묘(支石墓)는 주로 경제력이 있거나 정치권력을 가진 지배층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인돌, 돌멘(Dolmen)’이라고도 한다. 4개의 받침돌을 세워 지상에 무덤방을 만들고 그 위에 거대하고 평편한 덮개돌을 올려놓는 탁자식(북방식)과 땅속에 무덤방을

로 진입하기 직전 군업2리 구룡령로 국도 56호선 도로변에 있어 체험장으로도 편리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 지석묘군은 땅 아래에 시신을 놓는 돌널(관(棺))을 마련하고 땅 위에는 덮개돌을 놓은 개석식(蓋石式) 지석묘, 또는 변형 지



◇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지석묘군

청동기시대 무덤 16기 개석식 형태 추정

만들고 작은 받침돌을 세운 뒤 그 위에 덮개돌을 올린 바둑판식(남방식)으로 구분된다.

홍천군 화촌면에 있는 군업리 지석묘는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무덤으로 모두 16기의 지석묘가 남아 있는데, 공작산으

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발굴 조사를 통해 성격이 밝혀진 바가 없어 정확한 구조는 알수가 없으나 다수의 지석묘 덮개돌에서 성혈이 확인되어 주목되며 1986년 5월 23일에 강원도기념물 56호

로 지정되었다.

또한 지석묘군 주변에서 민무늬토기편이 출토되어 이 지역에 청동기시대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박영권 기자



전설(16) 홍천 북방면 천냥 바위

옛날 홍천 북방면 도사곡리에 김기주라는 만석꾼이 살았다. 전답을 돌러보노라면 한 나절이 걸릴 정도로 시간도 많이 걸렸다. 이 많은 전답을 경작하기 위해 많은 일꾼이 필요했다. 머슴도 한 둘 가지고는 감당 할 수 없어 힘이 세고 건장한 장정을 4-5명을 거느

더니 딱했는지 천 냥을 빌려 주었다.

칠용이는 아버지의 병 치료로 새경으로 받은 돈도 모자랐다. 친구에게 이자도 주지 못하고 미안한 마음만 갖다가 한번은 막걸리를 두병을 사들고 뒷산의 바위로 머슴친구를 불러냈다. 둘이서 술잔을 기울이다가 칠용이



◇ 홍천군 북방면 천냥 바위

젊은 머슴 2명이 진한 우정 나누던 바위

리고 일을 시켰다. 머슴 중에 일 잘하는 칠용이라는 머슴이 있었다.

그는 김기주 만석꾼의 집에 오기 전에 이미 많은 빚이 있었다. 아버지는 중농이었는데 갑자기 병이 든 탓에 전답을 팔아 치료를 받다보니 전답을 모두 팔고도 빚을 천 냥이 나 졌다고 한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머슴살이 새경으로 빚을 갚으려고 했지만 현실은 도저히 불가능했다. 그리고 돈을 갚으라는 독촉까지 심하게 받았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돈이 있다는 머슴친구에게 하소연을 했다. 그 친구는 이야기를 듣

말을 꺼냈다. 아버지의 병 치료로 자신의 새경으로 받은 돈도 모자라 갚을 길이 막연하니 어떡하면 좋겠냐며 하소연했다.

살아도 희망이 안보이니 차라리 이 바위에서 떨어져 죽겠다며 벌떡 일어났다. 깜짝 놀란 머슴 친구는 칠용을 붙잡고 말했다.

“이 사람아 아무리 빚을 못 갚는다 하여도 사람 목숨과 바꿀 수 있는가? 아버지의 병도 낫고 자네의 형편이 좋아진 후 갚으면 되지 귀한 목숨을 헌신짝처럼 버리면 되겠는가? 제발 죽지 말고 열심히 살다보면 갚을 날이 있을 것이네.”

그 머슴 친구는 위로까지 했다. 칠용은 우

정 어린 머슴친구의 말 한마디에 마음을 바꿔 죽음을 면했다. 타고난 건장한 체격과 부지런함으로 주인의 마음에 들어 새경을 다른 머슴보다 많이 받아 빚을 갚았다고 한다.

아버지 병도 호전돼 칠용의 집은 형편이 나아져 갔다고 한다. 말 한 마디에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그들의 우정에서 “한마디 말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유래 되었다고 한다. 그 후 그들이 앉아서 술을 마시고 우정을 나눴던 바위를 천냥 바위라고 전해져 내려온다고 한다. 그들은 그 후 형제의 우정으로 살았다고 한다.

이광명 기자



우리 직장 칭찬 릴레이 (37)

한국전력 홍천지사

어려운 이웃에 ‘환한 전깃불’ 비추는 봉사 전개

한국전력 홍천지사(지사장 최부영)는 1937년 3월 남산합동전기(주) 홍천출장소로 발족된 후 1977년 청주에서 춘천으로 소속이 변경되고, 1985년 9월부터 강원본부 홍천지사로 거듭났다.

현재 서석 서비스센터를 포함 총 47명이 근무하고 있다. 홍천지사의 특징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관할하고 있다. 직원들이 전력설비의 점검이나 설계를 위해 수시로 현장에 다니는데, 내면의 경우 차량으로 편도 1시간 30분가량이 소요되어 현장에 다녀오면 밀린 업무처리를 위해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홍천지사 직원들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9월 장애인복지관에 노사합동사랑나눔 행사를 실시했고, 서면사무소에서 2016년도 제2차 홍천군종합이동봉사에 참여했다.

홍천군노인복지관에 물품 후원 및 봉사활동을 주기적으로 전개하여 지난해 11월 너브나래인의 날 행사 때 국회의원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5월 어버이날에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최고 품질의 전통 장을 지역의 경로당에 후원하는 행사를 갖기도 했다. 독거노인을 위해 전기설비를 무상으로 점검 및 수리해 주며, 매년 복날에 인근의 경로당을 찾아 삼계탕을 대접하는 등 남다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직원들이 사무실에 모여 칭찬릴레이를 시작했다.

직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최부영(57) 지사장을 칭찬했다. 최 지사장은 1987년 입사하여 강릉지사장, 속초지사장을 역임하고 올해 1월 홍천지사장으로 부임했다.

평소 한전 강원본부 내에서 신망이 두텁기로 유명하며,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직원들을 항상 격려하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이다.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 때 전력 확보를 위한 비상 대기 근무 시 새벽까지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야식도

같이 먹으며 소탈하고 사려 깊게 직원들을 독려하여 힘든 근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또한 지사의 봉사단장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며, 실천하는 봉사에 의미를 두고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같이 노력하는 참봉사



최부영 지사장



길오성 노조위원장



전윤희 대리



차동철 사원

최부영 지사장 - 올 1월 부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봉사에 앞장

길오성 노조위원장 - 매사 직원의 권익향상에 최선... 7선연임 당선

전윤희 대리 - 동료들 ‘긍정·열정의 아이콘’ 민원인 해결능력 탁월

차동철 사원 - 입사 2년차 밝고 활달한 성격 칭찬 자자한 최고일꾼

인이다. 자리에 모인 직원들은 “최 지사장은 홍천지사의 수장으로서 직원들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 행동하는 진정한 리더”라고 말했다.

최 지사장은 길오성(55) 노조위원장을 칭찬했다. 길 위원장은 축구선수 출신으로 대학시절 3년간 한전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선수생활을 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졸업 후 8년간의 실업팀 생활을 거쳐 1985년 한전에 입사했고, 1990년부터 홍천지사에 근무하고 있다. 홍천의 산과 물, 사람들이 너무 좋아 홍천에 눌러 앉았다는 길 위원장은 항상 직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때론 밤잠 설치며 고민하고, 때론 큰형님처럼 직원들을 보듬어 주는 자상함을 갖고 있다. 길 위원장은 “웃으며 일하는 분위기는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이 요행으로 잘 풀리기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늘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 즉 내가 고생하는 것이 곧 우리 직원들을 위한 것’이라는 자신만의 노조활동 철학을 지켜온 길 위원장은 올해 3월 7선째 지회위원장에 당선되었다.

길 위원장은 전윤희(44) 대리를 칭찬했다. 전 대리는 홍천에서 나고 자란 홍천의 딸로 1998년 홍천지사에 입사하여 20년째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 직원이다. 현재 총무부서에 근무하며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담당하고 있고, 노조지회에서는 여성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항상 밝고 침착한 모습으로 고객을 대하며, 동료들 사이에선 긍정과 열정의 아이콘으로 불릴 정도로 어려운 업무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직원이다. 특히 특유의 재기를 발휘하여 민원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요소들을 채워주고, 항상 먼저 다가가 선배들을 위하고 후배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지사의 중간교량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전 대리는 차동철(22) 사원을 칭찬했다.

차 사원은 철원 출신으로 2012년에 입사하였고, 지난해 홍천지사에 전입해 현재 전력공급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평소 운동을 좋아해 홍천군내 조기축구팀 ‘콘돌’의 막내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차 사원은 군 복부 기간을 제외하면 2년여의 짧은 근무 경력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밝고 활달한 성격으로 선배들로부터 전수받은 노하우를 아낌없이 발휘하며 업무에 임하고 있다. 특히 담당지역인 북방면·서면·남면의 전력공급에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외부로부터의 칭찬이 끊이지 않는 유능한 사원이다. 늘 능동적이고 도전적이며, 젊은 패기로 활력을 불어 넣는 지사의 일꾼이며, 한전의 전도유망한 인재이다.

홍천지사 직원들은 끈끈한 동료애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여러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역동적인 근무분위기 속에서 홍천군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최정규 기자



기자칼럼



김 정 현

홍천실버신문 기자

아침의 해가 빨갛게 떠오른다. 태양은 같지만 어제의 태양은 아니다. 어제는 이미 과거의 시간이기에 그 시간 속에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현재 우리가 숨쉬고 말하고 보고 느끼는 이 시간이 우리들의 삶을 이어가게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 없다면 미래는 무용지물이다. 지금을 즐겁고 보람 있게 살아야 하는 이유다. 어렸을 때는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며 꿈을 키운다. 부모는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자식에게 기

대를 걸며 대리만족에 매달린다. 은퇴 후의 삶은 얼마나 자유로운가? 누구나 살아오면서 순풍에 돛을 달듯이 살아 온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나름대로 녹록치 않은 삶에 우여곡절을 겪으며 살아 온 사람이 많을 것이다. 상속이라든가 넉넉하게 받았으면 모르지만 지금의 노인 세대는 일부의 부유층 외에는 뜬구름 같은 얘기이다. 나 역시 몸 하나 강건하게 태어나 세상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차창 밖의 스치는 풍경을 바라보라.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갈 것이다. 우리의 삶도 우주의 영원성에 비하면 달리는 차창 밖의 풍경처럼 찰나의 순간이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은 더 빨리 간다. 누구나 처음 찾아가는 낯선 길은 멀게 느껴진다. 그리고 자주 갔던 낯익은 곳은 가깝게 느껴진다. 우리가 여행하다보면 몇 번 갔

해 답소를 나누도록 노력해 보자. 고운 새소리의 낭랑한 노래에도 취해 보자. 나무들의 살랑거림에도 예민한 감성으로 다가가 보자. 자신의 삶에서 소중한 모든 것을 축복하고 음미 해보자. 마음을 가지고 실천에 옮기면 안 될 것도 없지 않은가? 어차피 살아가야 하는 것 신나고 멋지게 사는 편이 좋지 않겠는가?

살만큼 살아온 세대인 노년의 삶은 즐겁게 살아가는 것 못지않게 바른 지각도 있어야 할 것이다. 자신만의 즐거움을 위해 혐오감을 주거나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올바른 삶이 아닐 것이다.

노년의 삶이 보다 풍성하고 행복하기 위해선 슬기롭게 자신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신이 즐기는 법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더 잘 알 것이다. 억지로 만 들어서라도 마음껏 웃고 즐기며 살자. 자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노년의 삶! 마음껏 즐기며 살자

의 빛을 보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왔다.

40-50대는 자녀의 교육과 집안이나 마련하기 위해 어깨가 무거워도 벗어 던지지 못한 숙명의 등짐을 지고 삶의 준령을 넘어야 했다. 그러다보니 노년의 설계는 꿈도 못 꾸었다. 지금의 노인세대는 52.4%가 제대로 된 노후의 설계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다.

던 곳은 지루하지 않고 빨리 간다. 그만큼 노년의 삶은 익숙한 길과 같다. 같은 시간이라도 빠르게 느껴지는 것이다. 매순간을 즐기며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자신이 처한 환경을 모두 긍정 마인드로 바꾸어라. 사소한 것에서도 즐거움을 느끼고 찾을 수 있다. 같이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있다면 보다 더 다정하고 살갑게 정성을 다

독자기고



박 시 열

대한민국전물군경유족회
홍천군지회장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국민의 호국·보훈 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하고 있다.

6월 한 달을 추모의 기간(1~10일), 감사의 기간(11~20일), 화합과 단결의 기간(21~30일)으로 나누어 기간별 특성에 맞게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추모의 기간에는 현충일 추념식을 실시하고 감사의 기간에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위로·격려와 보훈관련 문화행사를 지원하며 화합과 단결의 기간에는 6·25기념식과 제2연평해전 기념행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

1952년 전물군경유족연금법이 제정 공포되고 연금지급 제도가 실시됐다. 연금 수급권자는 전물군경의 유족으로 제한하였고 당시 연금연액은 60만 원으로 균일하게 지급되었다. 이런 원호제도는 여러 차례 보완을 시도했으나 영세

급되기 시작했다. 현재 전물군경유자녀의 평균 연령이 70대 초반이 되었으나 매월 받는 금액은 2017년을 기준으로 제적유자녀 118만 1000원, 승계유자녀 100만 4000원, 신규유자녀 11만 8000원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보훈처가 보훈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민간단체로는 대한민국전물군경유족회(이하 유족회)가 회원관리와 보훈시책의 협조와

해 처음 개최한 6·25 전물호국영령추모제를 꼽을 수 있다. 이 행사는 매년 10월 12일을 제례일로 정해 전통제례행사를 홍천향교 지원 아래 성대하게 개최되고 있다. 3월에는 보훈가족 합동 위로연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보훈연금, 제수당 지급 수준이 너무 빈약한 보훈시책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국가유공자 유족들에게 매월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조금은 위안이 되고는 있지만 지급되는 수당이 전

국가유공자와 유족 명예수당 동일지급 바람직하다

한 연금 지급 외에는 전근대적인 원호에 불과했다. 그 결과로 6·25 사변 후 70여 년이 지나도 유족연금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기준과 기초생활수급자 월생계비 지급 기준에도 못 미치는 월 130만 원대에 머물러 있다.

또 전물군경 유자녀들에게 1998년 처음으로 25만 원의 수당이 지

지될성을 부여하고 있다. 홍천지역에도 유족회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 유족회홍천군지회는 113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다. 그 중 6·25 전물군경호국용사 유자녀 50명, 상이군경유자녀 26명, 공상군경부모 및 유자녀 6명, 순직군경부모 및 유자녀 31명이다.

유족회의 가장 큰 행사는 지난

물군경유족과 6·25 및 월남 참전용사와의 차이가 있어 향후 동일수당지급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 다시 보훈의 달이 돌아왔다. 올해는 유족들의 숙원인 명예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형평성을 갖춘 수당 지급조례로 개정되기를 강력 요구한다.